

## 에너지신산업 공공과 민간 경계 허물어진다

### 공기업들, 민간 영역 에너지컨설팅·에너지효율화사업 잇따라 진출

그동안 민간 기업이 주로 수행하던 에너지컨설팅과 ESS설치사업 등에 공공기관들도 뛰어들면서 에너지신산업을 둘러싼 공공과 민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관련기사3면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11월 ESS를 활용한 기업의 에너지 컨설팅과 빅데이터 기반의 에너지사용 최적화 지원업무를 위해 종합 에너지관리센터인 MSP(Energy Management Service Provider) 센터를 구축하고, ESS설치와 에너지 다소비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절감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울산광역시, 강원도 등 지자체와 함께 ESS솔루션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선 울산광역시와 함께 지역 내에 총 20.4MWh의 ESS를 구축해 약 200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 차원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키로 했다.

또 강원도와도 ESS 보급 확대와 수요자원 거래시장(아전 전기 거래사업)의 확산을 통해 에너지절감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거점 에너지거래시장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원도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컨설팅을 실시하고, ESS를 활용한 전기요금 절감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강원도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개선한다는 게 동서발전 측의 설명이다.

이밖에 동서발전은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인 'ESS MSP'로 동국제강 인천공장 등에 ESS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약 100MWh 용량의 420억원 규모다.

그동안 발전사들이 REC 가중치를 받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ESS를 연계해 설치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에너지컨설팅을 통해 다른 기업이나 공장에 ESS를 설치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남동발전도 국내 최초로 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신산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수요관리형 ESS와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광발전 연계형 ESS를 활용해 공장 내 전력을 분산전원을 통해 보조 공급함으로써 전력사용량과 수전전력요금을 저감해 공장 내 전력자립률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한전과 발전사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설립한 한전에너지솔루션도 고효율 기기 교체와 ESS 설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도입을 통한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지난 한해 민간부문의 10개 사업을 비롯해 서울 중랑물재생센터 등 공공부문에 총

100MWh 규모의 ESS 설치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 같은 공공기관의 민간영역 진출에 대해선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함께 ESS 보급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민간 영역으로 간주되던 에너지컨설팅과 에너지효율화사업 부문에 공공기관이 진출함으로써 민간과의 경쟁이 치열해져 중소기업들의 먹거리가 줄어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형석 기자 azar76@



한수원, 협력사 해외원전 시장 진출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2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신고리 5·6호기 등 신규 원전건설 사업의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주요 협력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협력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서 그동안의 노력 및 업무성과에 대해 공유했다. 간담회에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정부, 전자파 미인증 제품 판매 LED조명업체 처벌 검토 업계, 행정소송 준비 등 강력 반발 '후폭풍'

정부가 2012년 7월 이후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팔아온 LED조명 업체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명 업체는 그동안 산업표준화법과 전파법 사이의 해석 문제로 인증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처벌에 대비해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거래 정지가 된 올해 5월 14일 이전까지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나라장터를 통해 제품을 판매해 온 업체를 전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미인증 제품수와 제품군, 판매량 등 그동안 판매된 현황을 조사해 왔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달청 내 계약심사회의를 통해 결과를 과기부로 통보할 것인지 심의하고 늦어도 6월 말까지 전달한다는 계획이 있다.

결과가 전달되면 과기부는 전파법상에 특별사법경찰권이 있는 전파연구원에 해당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전파연구원은 사안에 따라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논란은 올 초 전자파 인증 없이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민원에서 시작됐다. 조달청은 이와 관련된 법률 해석을 전파연구원에 의뢰했고, 평가 면

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지난 5월 14일 전자파 적합등록 필증을 받지 않은 모든 제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판매 중지시켰다.

그동안 대부분의 조명업체는 전파법상에 명시된 면제 기준에 '산업표준화법에 준하는 평가를 받은 경우'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인증을 받은 제품은 면제 대상으로 인식하고 별도로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았다.

2012년 7월부터 전파법이 분리된 이후 약 6년간 나라장터를 통해 등록된 업체 중 90% 이상이 별도로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팔아왔다. 조달청은 그동안 해당 사안을 인지하지 못하고 민원이 들어오자 뒤늦게 조치를 취하는 셈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그동안 모호한 법률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 필증 관리가 소홀했지만 조사 결과 문제가 있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전파연구원에서 대형 로펌 3곳에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기존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 필증을 받아야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미인증 제품을 판매한 업체를 대상으로 처벌을 검토하자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미 조명공업협동조합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판매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회부한 상태고,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한 조명업체 관계자는 "이미 판매 정지 처분을 받고 비용을 들여 모든 제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필증을 받았는데 이전에 판매한 실적에 대해 또다시 처벌한다는 것은 신뢰도와 품질 등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게 된다"며 "6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조달청 담당자들은 버젓이 자리를 보전하면서 업체들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승교 기자 kims@

## 갑을메탈, 전선소재 SCR사업 '손 댄다'

### LS전선아시아에 설비 매각, 메탈사업 재편

전선소재 및 자동차용 전자 부품 제조 전문회사 갑을메탈(대표 박한상)이 전기동으로 전선소재를 생산하는 SCR 사업을 정리한다. 관련 설비는 LS전선아시아(대표 신용현)에 매각하고, 재생동으로 선재를 제조하는 JCR을 중심으로 메탈사업을 재편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갑을메탈은 SCR 생산설비 LS전선의 베트남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LS전선아시아에 매각하기로 했다. SCR은 순도 99.99% 전기동을 원료로 생산하는 전선소재다. 갑을메탈은 SCR과 함께 폐전선을 재활용한 동스크랩으로 선재를 만드는 JCR 라인을 모두 보

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전선소재 시장에서 대기업들과 경쟁해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해왔다. 특히 SCR 내수 시장에서는 LS전선과 대한전선, 가운전선, 일진전기 등 전선업계 대기업과 경쟁하며 소재 전문기업으로 활동해 왔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는 SCR비중을 줄이고 JCR을 중심으로 선재를 생산·판매해 왔다.

실제로 갑을메탈의 SCR, JCR 생산능력은 각각 연간 14만4000t, 7만2000t으로, SCR이 2배 정도 크지만 반대로 생산실적(2017년도 기준)은 SCR(5812t)이 JCR(5만4377t)의 10분의 1에 불

과하다.

매출 또한 JCR(3817억여원)이 SCR(416억여원)의 10배에 가깝게 많다. 이런 가운데 나온 이번 매각 결정은 시장상황과 수익성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주요 판매처인 중소전선업체들의 JCR 선호도가 높은 데다, 친환경 자원재생 제품이면서도 SCR과 비교해 제품 특성도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갑을메탈은 JCR 업계 리더로, 관련 시장 점유율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면에 계속

김병일 기자 kube@

### 건설현장의 임시가설 전기자재 전문 제조업체

## 환경과 고객의 믿음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TGP 문전반(보급형)

TGS 문전반(표준형)

작업용 머리등

LED 센서등

소형문전반

소형문전트립(4구)

동력검류 작업 릴레이박스

3-Way 콘센트

연장기나형형 머리등등등

2-Way 콘센트

LED 센서등

www.taegun.co.kr  
 e-mail : tg@taegun.co.kr  
**환업혁명 (環業革命)**

임시본전반은 현장 여건에 따라 환수 조건의 임대 매출가격으로 현장의 원가절감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주)태긴상사와 함께 하는 기업은 간접고용의 연계로 사회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장애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좋은 품질의 제품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 환경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

✓ 매출이익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소외된 이웃과 직원을 살피며 나눔을 행하는 삶을 기업의 목표로 삼는 기업

**주 태긴상사**  
 TAEGUN TRADING CO., LTD.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목신로 57번길 37  
 TEL 031)923-6400 FAX 031)923-7600